

# 다음주부터 국감 돌입… 법사위·과방위 격전 예고

17개 상임위, 총 834개 공공기관 대상 다음 달 6일까지 감사  
법사위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과방위 ‘이진숙 체포’ 공방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고 버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출범 첫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으며 국감에서 날날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삼을 방침이다.

국감 최대 격전지론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에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성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불을 지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려며 일찌감치 사법부와의 국감 일전을 예고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추가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으로 소관 상임위원 과방 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이 전 위원장이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에선 계엄 사태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전말을 규명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와 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국감 쟁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에서 대기업 충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전 대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실제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현황을 보면 관행은 여전했다.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 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섰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전현희 “3대 개혁 신속·정교하게 완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원 “K푸드 홍보 위한 대통령 예능 출연 문제 안돼”

### 국민의힘 공세 일축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설사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K컬처와 K푸드를 전 세계에 선전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꼭 문제가 그렇게 되느냐, 이건(국민의힘의 공세) 너무 심하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수습에 집중하지 않고 예능에 출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게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의 개혁입법 속도전에 당정대 간 ‘온도차’를 언급하

고, 자신이 다시 ‘그런 말은 카톡방에서 할 말’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민주 정부, 민주 정당이므로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조정을 해야 한다. 당정대가 합의 발표해야지 들쭉날쭉하면 국민이 불안하고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보도가 커져서 우상호 수석한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 열차가 출발해 잘 달리고 있다”며 “기관사인 대통령실은 안전 운전을 위해 속도 조절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로 인해 개혁이 주춤하거나 서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가 과잉이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경찰이 순진했거나 의혹 과잉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도 박범계 의원께서 지적한 것에 상당한 공감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니 TV에 덜 나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안나와 좋다는 반응도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이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석방에 대해 주민들의) 별 호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의원이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 “이 전 위원장이 계속 불출석했으므로 법적 요건에 의하면 당연한 체포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체포가 가져올 여파를 생각하면 (경찰이)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든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장동혁 “대미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 국민의힘 대표 제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 관세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선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 내용을 공유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국민의힘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을 거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늘고 있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할 것”

### 민주 박수현 수석대변인 언급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의 취지에 대해 박 수석 대변인은 언론과 통화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취재해 보고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실 입장에서 김 실장의 불출석을 결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무비서관 고유 업무인 청와대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

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김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뜻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해 줄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당이 염려해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국감에)출석하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발언하겠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과 김 부속실장 입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